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도입 농가 찾아 현장 목소리 들어

- 이승돈 청장 1일 한우농가 방문…섬유질배합사료 제조 현장 점검
 - 농가 어려움 듣고 개선 사항 논의
- 이 청장 “현장 중심 기술 보급으로 한우농가 경영난 해소에 앞장설 것”

※2026. 4. 1.(수) 10:30~11:10, 충청북도 청주시 흥도농장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한우농가(흥도농장)를 방문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 소통 시간을 가졌다.

* 풀사료와 알곡혼합사료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

이 청장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원료 투입 및 배합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했다. 이어 한우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 귀농해 한우 사육을 시작한 흥도농장 김성훈 대표는 초기에는 사료비 부담과 노동력 부족, 한우 사양관리 어려움 등으로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교육을 들으며 2024년부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를 도입한 결과, 사료비를 크게 절감하고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농가 사례를 참고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농가들과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흥도농장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도입 이후 한우 출하 월령을 약

1.9개월 단축하는 효과를 봤다. 육질 최고 등급(1++등급) 출현율은 23.7% 포인트(37.5%→61.2%) 개선됐고, 사료비는 약 27% 절감하는 등 뚜렷한 경영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 청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평소 농가에 필요한 기술과 지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라며 “관련 교육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배합비 설계, 원료 수급, 사료 제조 작업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근 축산농가 청년농업인들도 참석해 사료비 부담 완화 및 노동력 절감, 사양관리 방식 개선 등 한우 사육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붙임. 현장 방문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윤호백 (033-330-0601)
		담당자	연구관	백열창 (033-330-061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방문 개요

- 목적 : 농식품 부산물 활용, 자가 TMR 제조 농가 현장 방문
- 일시 : '26. 4. 1.(수), 10:30~11:10
- 장소 : 충북 청주시 (홍도농장, 김성훈(48) 대표)
- 주요내용
 - 한우 TMR 자가 제조 기술 개발 현황 및 제조 시연
 - 한우 자가 TMR 농가 운영 사항 및 해결 방안 청취

□ 참석자

- 내부: 청장님, 한우연구센터장 등
- 외부: 홍도농장 김성훈 등 인근 청년농업인 2~3명 5명
 - * 청장님 현장 방문 후 당일 오후 오송읍 인근 자가 TMR 기술 도입 희망 농가 교육 추진

□ 세부 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09:00~10:30	90	○ 이 동(농진청 → 오송, 107km)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길 205-15	
10:30~11:10	40	○ 자가 TMR 제조 한우농가 현장 방문	소개:한우센터장